

# 학교생활 관련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11년~2020년 석·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이환주\*·오영섭\*\*

## 【 목 차 】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논의 및 제언

## 1. 서론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 및 청소년은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적응과 성장이라는 발달과제를 떠안게 된다. 즉, 학교라는 사회집단에서 요구하는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고, 또래, 교사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학생의 역할과 본분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적응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발달과 학습을 방해받기도 하며, 인지·정서적 불안정과 품행장애, 학업 중단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2000년대 초반 몇몇 학교도서관의 사서를 중심으로 학교 환경

\* 주저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 tidhktkfd2@hanmail.net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BK21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연구교수, yesoh@inha.ac.kr

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친구 관계 및 교사에 대한 신뢰, 학업 성취, 정서·행동 변화 등 학교생활 관련 요인들에 대한 점진 및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2020)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6,209개, 중학교에 3,166개, 고등학교에 2,349개, 대학에 707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주로 학교 건물 내에 자리 잡고 있어 학령기의 아동 및 청소년의 접근이 수월하고, 치료적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구비하고 있어 독서치료의 환경을 갖춘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서 및 사서교사가 전문상담교사 또는 독서치료사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동 및 청소년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학교생활 적응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서치료를 통해 학습 동기가 낮고, 학습 부진을 호소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자기표현 능력이 서툴러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을 비롯하여 자아정체감의 혼란, 다양한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는 청소년, 인지적·사회적 발달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내적 성장을 돕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 93편을 분석하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 2. 이론적 배경

### 1) 독서치료의 개념 및 발달과정

독서치료(bibliotherapy)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책, 문학을 뜻하는 'biblion'과 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준다는 의미인 'therapeia'에서 유래된 것으로, 책과 문학이 지닌 치료 효과에 주목하여 책을 읽음으로써 참여자의 적응과 성장, 정신적 건강에 치료와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기 형태의 독서치료는 주로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요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병원에서 벗어나 도서관, 일반 의학, 심리학, 형사사법, 간호, 사회사업, 교육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역으로 독서치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Cornett, 1980).

Doll & Doll(1997)은 독서치료가 문학작품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돕는 과정이며, 치료를 위해 선정한 문학작품에 내재 되어 있는 생각이 독자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질병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김유리, 2020).

한정아(2007)는 참여자가 책을 매개로 상담자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참여자의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동시에 가치관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박재식(2010)은 독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독서치료를 정의하면서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의 활동뿐만 아니라 감성적이며 정서적인 반응에 초점을 두고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ynes와 Hynes-Berry(1994)는 임상적 독서치료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발달적 독서치료를 구별하여 제시하며, 훈련된 치료자가 참여자의 감정과 인지적 반응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인쇄된 글,

시청각 자료, 참여자 자신이 쓴 창의적 글쓰기 작품에 관한 토론을 유도하고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치료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적 독서치료를 강조하였다.

Lack(1985)은 독서치료 활동의 종류와 참여한 어린이의 특성에 따라 발달적 독서치료와 임상적 독서치료로 구분하였다. 발달적 독서치료란 정상적으로 일상의 일들을 잘 수행 해 나가기 위해 독서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며, 읽기 자료와 토론 활동을 통해 독자의 일반적인 인성 발달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임상적 독서치료는 정신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방법으로 정서적 또는 행동 영역에서 심하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춘다(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03).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독서치료가 인간의 심리와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원시 부족사회에서 제사장들이 부족의 안녕을 빌거나 개인적 소망을 표현하며 부른 주술적 성격의 집단 무요 '구지가'와 '해가', 조선 시대 박씨부인전, 흥부와 놀부전, 그리고 민담이나 전설 등에서 현실의 고통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고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예들을 넓은 의미의 독서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김정희, 2020).

이상과 같이 독서치료에 대한 개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독서치료는 문학이 가진 치료적 기능에 주목하여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책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고 위로를 얻어 새로운 힘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서치료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예방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다양한 문학작품을 매개로 치료자와 일대일 또는 집단으로 글쓰기, 토론, 역할극, 그림그리기 등의 문학적, 미술적, 음악적, 연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내면의 성장, 적응 및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얻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2) 학교 현장과 독서치료

독서치료에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은 읽기 심리요법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치료는 독서치료사와 일대일 혹은 집단으로 진행하며, 참여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고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 및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상황별 도서 자료를 활용한다. 독서치료사는 치료적 발문과 문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시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신에 대한 통찰을 얻어 일상생활에서 자기적용을 돕는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때 독서치료사는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뿐 아니라 인간의 발달 특성 및 정신건강과 상담이론 그리고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독서를 심리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뜻한다(임성관, 2014).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독서치료는 참여자, 참여집단의 부적응문제 유형 또는 학령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제에 따라 치료 목표가 달라진다. 즉 다양하게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문제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학령기의 발달 시기와 과제에 따른 심도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개발 및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독서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치료 목표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으로 학교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맞춤형 학습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습 지원과 학습 상담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것에 그칠 뿐 정서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김효숙(2018)은 읽기 능력 저하가 학업 성취 수준 저하로 이어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형성뿐 아니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맺음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

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독서치료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의 정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상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참여 학생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여 학습 부진의 원인을 감별하고, 학습 동기 유발과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학습 무기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내적동기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 연구방법

#### 1) 분석대상논문

본 연구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최근 10년간의 동향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 분석을 위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문헌검색 및 선정과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문헌검색(2020년 10월 기준) 검색DB: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검색조건 검색어: 독서치료, 집단독서치료, 학교, 학생 검색기간: 2011-2020.10 자료유형: 석박사학위 논문 검색결과: 93건 최종문헌선정 : 93건
---

<그림 1> 문헌검색 및 선정과정

<그림 1>에서 제시된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학술연구정보 공유시스템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를 자료검색을 위한 주요 도구로 사용하였다.

둘째, 검색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1차 검색어인 ‘독서치료’

를 논문명으로, 결과 내 재검색어를 ‘학교’, ‘학생’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2차 검색어인 ‘집단독서치료’를 논문명으로, 결과 내 재검색어를 ‘학교’, ‘학생’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②검색기간을 2011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③자료유형을 학위논문으로 설정하였다. ④학위유형을 국내 박사 및 국내 석사로 지정하였다.

셋째, 1차 검색어 결과는 140건으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밖 시설에서의 적응을 위한 독서치료 논문을 제외한 결과 총 30편이 검색되었다.

넷째, 2차 검색어 결과는 110건으로, 1차 검색 결과에서 중복된 논문이거나 독서치료 또는 집단독서치료가 아닌 독서요법으로 된 논문은 제외하여 총 63편이 검색되었다. 1차 과정에서 검색되지 않은 논문의 공통점은 주제가 ‘집단상담’, 또는 ‘집단독서치료’로 설정되었다.

다섯째, 이와 같은 검색조건을 가지고 2020년 10월 초순에 검색한 결과로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최근 10년간(2011-2020.10)의 학위 논문은 총 93편이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서 86편은 원문(Full Text)을 제공하였으며, 나머지 7편은 초록과 목차만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초록과 목차만 제공하는 7편의 논문에서도 연구동향 분석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석·박사 학위논문은 주로 연구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독서치료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교사로서 독서치료사의 전문적 자질을 갖춘 상태에서 학위과정에서 연구한 자료들이므로 현장성이 강한 연구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집약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점이 될 수 있다.

## 2) 분석 준거

독서치료의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분석준거 개발을 위해 독서치료 연구

동향의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독서치료 선행연구의 분석준거

연구자(연도)	연구분야	분석대상	분석준거
정수연(2011)	독서치료	초등학생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독서치료 과정을 중심으로-	연도별, 학문영역별, 대상자의 문제유형별
신다솜(2016)	독서치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 동향 분석: 2005년~2014년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분야, 연구목적, 연구 주제어, 연구방법, 연구대상의 선정, 연구프로그램의 구성
차주희(2016)	독서치료	청소년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2001~2015년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생산 수의 연도별 분포, 연구분야별 분포, 연구유형별 분포, 연구대상 성·연령·집단 구성원 수별 분포, 자료 선정 기준별 분포, 연구목적별 분포, 연구목적별 이용 자료 중 빈번하게 사용된 자료
김유리(2020)	독서치료	어린이 독서치료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연구년도 분기에 따른 분류, 연구자의 학문 분야, 발달단계, 연구주제, 연구방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수연(2011)은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학문영역별, 대상자의 문제유형별로 분석하였고, 그중 임상적·치료적 독서치료를 목적으로 한 학위논문을 독서치료 과정 이론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다솜(2016)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과 국내 전문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여 향후 초등 국어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가치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차주희(2016)는 14세부터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과 국내 전문 학술지 논문 분석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자료를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김유리(2020)는 만0-12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독서치료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이명희(2011)는 독서치료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독서치료의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조사 연구하였고, 조근영(2012)은 문헌정보학 분야와 문헌정보학 이외 분야의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박순주(2018)는 3년간의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최근 동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동향연구에 대하여 메타검토를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최초로 다루고자 한다.

### 3) 연구동향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제시된 독서치료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4편의 문헌에서 다른 분석준거를 검토하였고,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치료프로그램의 3가지 상위범주를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상위범주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93편의 논문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9가지의 하위범주를 2차적으로 도출하였다. 2차 범주화 작업을 통해서 정리된 최종적인 분석준거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연구동향 분석틀

	범주	내용
기본정보	학위	석사, 박사
	발행연도	2011~2020년 2월까지 연도별 추이
	전공분야	독서치료 외 27개
연구대상	학년	초중고등학교 12개 학년
	연구참여자 수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40명, 41~50명, 50명 이상
	문제유형	발달과정, 정신장애
연구방법 및 치료프로그램	연구방법론	양적, 질적, 혼합, 문헌 연구
	치료프로그램의 유형	발달적·예방적, 임상적·치료적
	치료프로그램의 목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발달

〈표 2〉에서와 같이 연구동향 분석들은 3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범주에 따라서 자료 분석을 할 것이다.

## 4.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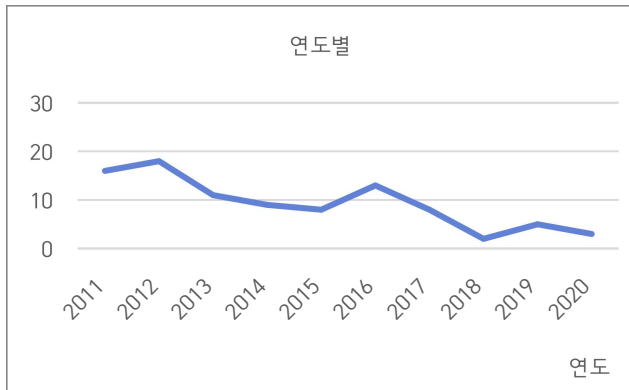
### 1) 기본정보

#### (1) 학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석·박사 학위논문 93편을 살펴보면 석사학위논문이 90편으로 약 96.77%를, 박사학위 논문은 3편으로 약 3.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보다 박사학위논문의 발행이 매우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독서치료를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석사학위과정에서 다양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활발한 연구가 박사학위 연구논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서치료 학회를 포함하여 독서, 독서교육, 독서연구, 도서관, 문학치료 관련의 다양한 학회에서 독서치료에 관한 학술 세미나와 연구주제를 다루어 보다 질적 수준을 높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 (2) 발행연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의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류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발행연도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자료 결과를 연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보면, 2011년에 발행된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은 16편이 연구되었고, 2012년에는 18편이 연구되었다. 2013년에는 11편의 학위논문이 발행되었다. 3년간 10편 이상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학위논문이 계속 발행된 것을 미루어볼 때 학교생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9편, 2015년에 8편으로 그 편수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6년에 학위논문 13편이 발행되었고, 2017년에 8편이 연구된 이후부터 급격하게 논문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이어졌다. 2018년에 2편, 2019년에 5편, 2020년에 3편의 학위논문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이 2014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순회 사서에게 교육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부여하였고, 소속 공공도서관에 지원과를 두어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돕도록 하고 있다(학교도서관

진흥법, 2018).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 발표한 공공도서관 발전방안 정책 연구자료에 의하면(2017),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학교도서관 지원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2014년도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점차 독서상담실이 축소되어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인문학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 지원 서비스 분야 중 독서치료 분야에 대한 지원 축소 및 인문학프로그램의 강화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시·도 교육청 공공도서관이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점차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연구가 감소하게 된 원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전공 분야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을 연구자의 전공 분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전공 분야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전공 분야		빈도	비율(%)
교육학(10개 분야)	교육	2	2.15
	초등상담교육	13	13.98
	사서교육	5	5.38
	상담심리교육	4	4.30
	교육과정과 수업	1	1.08
	영재교육	1	1.08

	문헌정보교육	1	1.08
	영어교육	2	2.15
	상담교육	2	2.15
	특수교육	1	1.08
	상담심리	37	39.78
	심리치료	1	1.08
	독서치료	1	1.08
	문학치료	2	2.15
	학교상담	3	3.23
	교육상담	1	1.08
	교육상담심리	1	1.08
심리/치료학(14개 분야)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1	1.08
	초등교육상담	1	1.08
	청소년상담	2	2.15
	아동청소년상담	2	2.15
	아동가족상담	1	1.08
	가족복지상담	1	1.08
	심리학	1	1.08
	사회복지	1	1.08
	아동	3	3.23
기타 학문(4개 분야)	아동청소년	1	1.08
	독서지도	1	1.08
	계	93	100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서치료 전공 외 27개의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의 전공 분야를 크게 교육학, 심리/치료학, 기타 학문 분야로 구분하였을 때 임상적 목적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심리/치료학 관련 전공 14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육학 관련 전공 10개 분야, 기타 학문 전공 4개 분야에서 독서치료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 분야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상담심리 전공에서 37편(39.78%)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다음으로 초등상담교육 전공이 13편(13.98%)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독서치료가 문학이 가진 학문적인 성격에서 확장하여 치료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상담, 심리 및 치료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서교육 전공에서 5편(5.38%), 상담심리교육 전공에서 4편(4.30%), 학교상담, 아동 전공에서 각 3편(3.23%), 교육, 영어교육, 상담교육, 문학치료, 청소년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전공에서 각 2편(2.15%)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수업, 영재교육, 문헌정보교육, 특수교육, 심리치료, 독서치료, 교육상담, 교육상담심리,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초등교육상담, 아동가족상담, 가족복지상담, 심리학,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독서지도 전공에서 각 1편(1.08%)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독서치료를 통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 심리, 치료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2) 연구대상

### (1) 학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적응을 위한 독서치료는 각 발달 시점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따라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의 연구대상의 학교와 학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하나의 연구에서 다양한 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는 중복으로 계측하였다.

<표 4> 연구대상의 학년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학교	학년	빈도	비율(%)
초	1	4	4.04
	2	9	9.09
	3	12	12.12
	4	13	13.13

	5	17	17.17
	6	8	8.08
중	1	9	9.09
	2	12	12.12
	3	6	6.06
고	1	5	5.05
	2	4	4.04
	3	0	0.00
계		99	100

연구대상자를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 17편(17.17%), 초등학교 4학년이 13편(13.13%), 초등 3학년 및 중학교 2학년이 각 12편(12.12%)의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3~5학년 및 중학교 2학년의 아동 및 청소년이 연구대상자로 독서치료에 많이 선정된 이유는 발달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집단 독서치료를 통해 자기 개방 및 타인의 수용, 또래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관계기술,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 향상을 돕는다.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스스로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자기 수용과 자기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독서치료 과정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또래와의 관계기술을 익히고, 정서 인식 및 조절에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각 9편(9.09%), 초등학교 6학년이 8편(8.08%), 중학교 3학년이 6편(6.06%), 고등학교 1학년이 5편(5.05%),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각 4편(4.04%), 고등학교 3학년이 0편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논문의 편수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를 분석해보면, 초등학교 1학년은 읽기 능력을 포함한 기초학습 능력을 형성하는 시기로, 독서치료에서 다루는 문학작품 및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참여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참여자의 읽기 수준을 고려한 도서 자료를 선정하고, 다양한 활동 방법을 고려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도 충분히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1~3학년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동시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놀려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이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므로 어느 시기보다 독서치료의 적용이 필요한 학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시에 초점을 둔 현행 교육 환경으로 인한 강한 압박과 제약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고등학생을 연구에 참여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2) 연구참여자 수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총 93편의 학위논문 중 원문(Full Text)을 제공하지 않은 학위논문 7편과 연구동향 분석을 한 학위논문 3편을 제외한 총 83편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을 연구참여자 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참여자 수 범위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연구참여자 수 범위	빈도	비율(%)
1~10명	10	12
11~20명	25	30
21~30명	13	16
31~40명	6	7
41~50명	9	11
50명 이상	20	24
계	83	1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 수를 일정 범위로 분석하였을 때 11~20명의 범위로 참여한 연구가 25편(3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50명 이상이 20편(24%), 21~30명의 범위로 참여한 연구는 13편(16%), 1~10명의 범위가 10편(12%) 순으로 나타났다. 41~50명의 범위가 9편(11%), 31~40명의 범위가 6편(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11명 이상의 범위로 참여한 연구논문은 연구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집단을 구성할 때 다수의 참여자를 포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명 이하의 범위로 참여한 연구논문은 연구대상자 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선정 도서를 읽고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을 돕는 발문을 통해 책과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참여자가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듣게 되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 정보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 확장시켜 표현해 나가며 통찰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 (3) 문제유형

문제유형은 연구자가 어떤 개인별 특성을 가진 대상자에 주목하여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연구에 참여시켰는가를 알 수 있는 분석기준으로서 교육적 차원과 임상적 차원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93편의 학위논문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을 크게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유형과 정신장애 문제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학령기 발달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문제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6〉이다.

〈표 6〉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유형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유형	빈도	비율(%)
스트레스 고위험군	2	2.67
양성평등의식 저하	1	1.33
인터넷중독	1	1.33
자아탄력성 저하	1	1.33
자존감 저하	1	1.33
정서조절능력 저하	4	5.33
학교부적응	5	6.67
학교폭력	1	1.33
학습부진	5	6.67
일반	54	72.00
계	75	100

연구대상자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유형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구분 지어 분석하였다. 93편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발달과정에서 뚜렷한 문제 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일반 학생으로, 54편(72%)의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일반 학생을 모집하게 되면 연구대상자 선별을 위해 별도의 척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또는 예방적 차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의 문제 유형이 각 5편(6.6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안에서 학습 부진이나 학업 기피 등의 학교 부적응 요인이 발생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20년 청소년 통계(2020)를 통해 2018년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1명은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그중에서 고등학생이 1.6%로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2020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안(2020)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2.51%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배경 학생의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율은 0.27%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 부적응과 학습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낮은 기초학력 수준, 학습 의욕 및 동기 저하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에게는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가 적절한 상담·치료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하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문학의 장르로, 언어와 그림이 주는 시각적 의사소통의 결합을 통해 참여하는 학생들의 정서적 교감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읽기의 부담이 적고, 책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전달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림책 속의 주인공과 동일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 유형으로 정서 조절 능력 저하가 4편(5.33%),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2편(2.67%)으로 나타났으며, 양성평등 의식 저하, 인터넷중독, 자아 탄력성 저하, 자존감 저하, 학교폭력의 문제 유형이 각 1편(1.33%)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내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서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와 충동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과 충동성은 학교와 사회적응,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사회적, 공격적, 도전적인 행위의 반복으로 학업 및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때 독서치료는 품행장애, 학업 중단 등 위기 청소년의 잘못된 가치관 및 신념을 교정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한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령기 연구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정신장애 문제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정신장애 문제유형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정신장애 문제유형	빈도	비율(%)
ADHD	1	20
경계선 지적기능	1	20
불안	1	20
우울	1	20
品行장애	1	20
계	5	100

〈표 7〉에 따르면, 93편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 중에서 정신장애 문제유형의 연구대상자가 참여한 연구는 5편이며, ADHD, 경계선 지적기능, 불안, 우울,品行장애 문제유형이 각 1편(20%)이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는 읽기 자료 및 활동을 선정할 때 참여하는 학생의 특성에 맞게 개인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주로 그림책을 선정하여 짧은 글과 그림을 통해 상호작용 및 이해를 돕고, 청각 장애, 언어장애, 근육위축 등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방법을 모색하여 카타르시스와 통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장애 문제유형을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발달 특성 및 정신건강과 상담이론에 대한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독서치료 전문가의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유형에 따라 적절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독서치료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및 치료프로그램

#### (1) 연구방법론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 연구의 네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93편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을 연구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연구방법론		학위논문		빈도	비율(%)
		석사	박사		
양적연구	실험	42	1	43	46.24
질적연구	내용분석	3		3	3.23
	사례연구	4		4	4.30
	현상학적 연구	2		2	2.15
혼합연구	실험+내용분석	37	2	39	41.94
	실험+현상학적 연구	1		1	1.08
문헌 연구		1		1	1.08
계		90	3	93	100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론은 양적연구로서 43편(46.24%)을 차지하였으며, 그중 석사학위논문은 42편, 박사학위논문은 1편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논문은 모두 실험연구로, 실험은 특정 변수의 변화 또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결과로 변인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이다. 즉 독서치료를 시행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양적연구의 실험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혼합연구 중에서 실험과 내용분석을 혼합한 연구가 39편(41.94%)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석사학위논문은 37편, 박사학위논문은 2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 분석에 따른 양적연구 분석 결과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경험보고서와 연구자가 대상자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여 이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혼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양적연구와 혼합연구 중심의 연구가 가진 한계를 질적연구를 통해서 극복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질적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김영순 외, 2018).

질적연구 방법론 중 사례연구가 4편(4.3%), 내용분석이 3편(3.23%), 현상학적 연구가 2편(2.1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과 현상학적 연구를

혼합한 연구, 문헌 연구가 각 1편(1.08%)을 차지하였다.

## (2) 치료프로그램의 유형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치료프로그램의 유형이 발달과정에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발달적·예방적 차원과 임상적·치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발달적·예방적 차원은 읽기 자료와 토론 활동을 통해 학령기 발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하는 독서치료로서, 자아정체성 형성, 자아존중감 향상,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학습태도 형성 등을 돕는 치료프로그램이다. 이에 반해 임상적·치료적 차원의 독서치료는 우울, 불안을 경험하고 있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학생, 학교폭력, 또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인터넷중독 등 행동을 수정 및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학생, 경계선 지적기능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치료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치료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연구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치료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치료프로그램 유형	빈도	비율(%)
발달적·예방적	82	88.17
임상적·치료적	10	10.75
발달적·예방적, 임상적·치료적	1	1.08
계	93	100

<표 9>을 살펴보면 치료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연구동향은 발달적·예방적 차원의 연구논문이 82편(88.17%)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그에 비해 임상적·치료적 차원의 연구논문이 10편(10.75%)을 차지하고 있다.

발달적·예방적 차원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의 특성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를 학교라는 환경으로 제한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예방의 목적으로 독서치료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 독서치료사가 아닌 사서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므로 임상적·치료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는 불안정한 정서·행동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된 외부 전문상담 기관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여 학교 안에 다양한 임상적·치료적 차원의 치료프로그램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안에서 전문 독서치료사가 진행하는 임상적·치료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을 돕는 치료적 개입이 상시 가능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발달적·예방적 차원과 임상적·치료적 차원의 치료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한 연구논문이 1편(10.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진안(2012)의 모래놀이치료를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불안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불안 증상이 심한 아동을 대상으로 불안 감소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돕는 치료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치료프로그램의 목적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발달 시기에 따라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와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학령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과 관련된 능력과 태도를 다루는 ‘인지적 측면’, 자기 인식 및 정서와 관련된 ‘정의적 측면’, 또래 집단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을 분석하였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연구논문 93편

중 하나의 연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계측하였고, 연구자료는 총 144편이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치료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연구목적별		빈도	비율(%)
인지적 측면 (7편)	이해력	1	1
	읽기 능력	1	1
	학습 태도	2	1
	학업성취도	3	2
정의적 측면 (90편)	공감능력	6	4
	동기	4	3
	사회성	4	3
	스트레스	5	3
	안녕감	2	1
	인성	2	1
	자기표현	2	1
	자기효능감	2	1
	자아정체성	3	2
	자아존중감	19	13
	자아탄력성	11	8
	정서	24	17
	진로	6	4
사회문화적 측면 (47편)	규칙위반행동	9	6
	대인관계	2	1
	또래관계	6	4
	또래애착	1	1
	부모자녀유대감	1	1
	사회적 기술	2	1
	스트레스 대처행동	2	1
	인터넷중독행동	1	1
	장애수용태도	2	1
	학교생활	21	15
계	144	100	



〈표 10〉을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한 연구는 7편(4.9%), 정의적 측면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한 연구는 90편(62.5%), 사회문화적 측면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한 연구는 47편(32.6%)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세 가지 측면의 치료프로그램 목적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인지적 측면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학습과 관련된 능력과 태도의 변화를 기대한다.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논문이 3편(42.9%), 학습 태도와 관련된 논문이 2편(28.6%), 이해력, 읽기 능력과 관련된 논문이 각 1편(14.3%)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측면의 치료프로그램 대상자는 주로 학습부진 학생이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발달 시기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학습 동기가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아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수준을 평가하여 학습 부진의 원인과 유형을 구분하게 된다.

둘째, 정의적 측면을 치료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연구한 학위논문 중에서 자기 인식 및 정서 표현과 관련된 논문은 90편(62.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서와 관련된 학위논문은 24편(26.7%)이고, 그 뒤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논문이 19편(21.1%),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논문이 11편(12.2%), 공감능력, 진로와 관련된 논문이 각 6편(6.7%), 스트레스와 관련된 논문이 5편(5.6%), 동기, 사회성과 관련된 논문이 각 4편(4.4%),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논문이 3편(3.3%), 안녕감, 인성, 자기표현, 자아효능감과 관련된 논문이 각 2편(2.2%)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정서와 연관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자료(2020)에 의하면, 2018년 청소년(9~24세)의 사망자 수가 2,017명으로, 2017년과 비교하여 3.8% 증가했으며, 가장 큰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수가 매해 늘어나고 있어 2019년 기준 중·고

등학생의 28.2%가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이 또한 3년 연속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학생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전문치료 프로그램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개입을 하고 있다.

셋째, 또래 집단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치료프로그램의 목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논문이 21편(44.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규칙 위반행동과 관련된 논문이 9편(19.1%), 또래관계와 관련된 논문이 6편(12.8%), 대인관계,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대처 행동, 장애수용 태도와 관련된 논문이 각 2편(4.3%), 또래애착, 부모자녀 유대감, 인터넷 중독행동과 관련된 논문이 각 1편(2.1%)이 뒤따랐다.

학령기는 아동이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학교 환경과 규칙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또래 관계 안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자각과 수용을 경험하고, 또래와 어울리며 소통하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등 원만한 관계 증진을 도울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기술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지적 측면을 단독으로 치료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정의적 측면을 함께 다루어서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점감 및 해소, 자아존중감 형성, 동기 유발의 목적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루는 사회성 기술, 인터넷중독 행동의 변화를 함께 도모하여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과 습관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석·박사 학위논문 93편을 분석준거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는 석사학위논문이 90편으로 약 9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10편 이상의 논문이 계속 발행되었으나 2014년부터 그 편수가 감소하였다. 독서치료 전공 연구자의 연구 외 27개의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심리/치료학 관련 전공 14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상담심리 전공에서 37편(39.78%)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2학년의 연구 참여가 높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참여율이 낮아졌다. 연구대상자 수를 일정 범위로 분석하였을 때 11~20명의 범위로 참여한 연구가 25편(30%)으로 가장 많다. 연구대상자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유형을 분석하였을 때 연구논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문제 유형이 나타나지 않은 일반 학생으로, 54편(71.05%)의 연구에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의 문제 유형이 각 5편(6.58%)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론은 양적연구로서 43편(46.24%)을 차지하였고, 혼합연구 중에서 실험과 내용분석을 혼합한 연구가 39편(41.94%)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치료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연구동향은 발달적·예방적 차원의 연구가 82편(88.17%)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의적 측면을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설정한 연구가 90편(62.5%)을 차지하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공감능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 연구동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사서, 사서교사 및 상담교사는 독서치료 전문가와 함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치료 효과분석, 학령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유형에 따른 독서치료 프로그램 사례와 적용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 독서치료가 발의된(김정근, 2005) 후 현재까지 독서치료의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물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적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점점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서 및 사서교사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과 독서치료 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독서치료사는 치료적 효과가 있는 문학작품을 선정하고,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 정신 건강 및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를 심리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발생하는 문제 유형에 맞게 세분화하여 독서치료의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치료적 발문을 통해 상호작용을 이끌어야 한다. 즉, 독서치료가 학교상담 전문분야로 자리 잡아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독서치료 전문 상담 인력을 학교 안에 상시 배치하거나 사서, 사서교사 및 상담교사가 독서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연구는 심리, 치료학 분야의 연구 전공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치료적 치료프로그램보다 발달적·예방적 차원의 치료프로그램이 훨씬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고, 다양한 상담사례를 접하지 못한 연구자의 역량 부족, 치료적 접근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고의적 자해(자살), 청소년 우울감 호소, 스트레스 증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고민 상담 건수의 증가를 통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임상적·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 적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학위논문은 독서치료 전공 연구자의 연구의 27개의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학제 간의 지속적인 연구 교류를 통해 학습부진, 인터넷중독, 품행장애,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불안장애, 우울장애, 경계선지적기능 등 임상적·치료적 독서치료가 더욱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서치료의 연구대상자 중에서 심리 정서적 안정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막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올바른 학습 태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시기에 기초학습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부진, 학습 무기력, 자아존중감의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독서치료의 자료를 선정할 때 그림책, 동시, 영상자료 등 읽기 쉽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제공하여 주인공과 동일시를 경험함으로써 읽기능력, 학습태도, 이해력을 신장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미결정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고등학교 1~3학년에게 정서 인식과 조절, 자아 탄력성의 회복, 청소년기 우울감 해소,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독서치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주중에 교과수업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방과 후 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자유롭게 개인 상담을 받거나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상담실

또는 학교도서관에 독서치료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교과 수업시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처럼 고등학교 재학 중 '상담 시수'를 편성·운영하여 고등학생 개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학교에서는 진로 미결정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 교과 연계로 독서를 통한 진로 탐색에 중점을 두고 '진로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 조재윤(2014)은 진로 학습을 위해 도구적인 역할로 이루어지는 독서를 진로 독서의 개념으로 제안하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 및 디자인을 돕는 독서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고등학생은 입시에 초점을 둔 교육 환경으로 인해 학습의 부담을 안은 채 진학을 준비하고 있거나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진로 선택을 통해 유능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서 성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위한 독서치료는 자신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삶의 가치관 정립 등을 도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치료 목표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석·박사 학위 연구논문의 연구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편에 불과하다(최정옥, 2016). 교육부의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자료(2020)에 따르면, 국내 거주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147,378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학생 지원방식이 한국어교육 및 학습에 집중되어있으며, 정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안정을 위해서 학습영역, 정서영역, 사회성 영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읽

기, 쓰기, 이해력 등의 기초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향상, 진로 탐색을 돕는 발달적·예방적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자아존중감 향상, 자아정체감 형성, 정서적 안정을 돕는 임상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개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여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분야를 확장해 나아가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독서치료 석·박사학위 연구논문 중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위논문만을 수집 및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20).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3-5.
- 김영순 외(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72.
- 김유리(2020). 어린이 독서치료 국내 연구동향 분석.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근(2005). 독서치료의 현 단계. 도서관문화 제46권 제2호, 한국도서관협회.
- 김정희(2020). 독서치료를 활용한 한국형에니어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논문.
- 김진안(2012). 모래놀이치료를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불안과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효숙(2018). 초등 저학년 읽기 중재프로그램을 통한 읽기 능력 변화 연구. 독서연구 제49호, 232.
- 박순주(2018).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최근 연구동향 분석 : 2015~2017학년도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재식(2010). 독서치료를 통한 이혼여성의 부정적 정서 회복과정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9.
- 서울특별시 교육정책연구소(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발전방안 정책 연구. 2017-45.
- 신다솜(2016).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연구 동향 분석 : 2005년-2014년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명희(2011). 독서치료 연구동향 :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임성관(2014). 독서치료의 모든 것. 서울: 시간의 물레, 241.
- 정수연(2011). 초등학생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독서치료 과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조근영(2012). 독서치료분야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2000년~2010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조재운(2014). 초등 진로 독서의 현황과 지향. 독서연구 제33호, 406-407.
- 차주희(2016). 청소년 독서치료 프로그램 연구동향 분석 : 2001~2015년 연구 논문  
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정옥(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사례연구. 배재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통계청(2020). 2020 청소년 통계. 통계청, 8-12.
- 학교도서관진흥법(2018). 법률 제15368 제 14조(학교도서관 협력망 구축).
-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편)(2001).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2003). 독서치료. 서울: 독서치료연구회.
- 한정아(2007). 진로독서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7.
- Cornett, C. E., & Cornett, C. F. (1980). *Bibliotherapy: The right book at  
the right time*. Phi Delta Kappa Intl Inc, 8-40.
- Doll, B. & Doll, C.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New Jersey:  
Libraries Unlimited, inc.
- Hynes, A. M., & Hynes-berry, M. (1994).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 Lack, C. R. (1985). Can bibliotherapy go public Collection building  
(Spring), In B. Doll & C. Doll,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 초록

# 학교생활 관련 독서치료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11년~2020년 석·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이환주 · 오영섭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 석·박사학위 논문 93편을 분석하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4편의 문헌에서 다른 분석 준거를 검토하였고, 기본정보,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치료프로그램의 범주에 따라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독서치료는 석사학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논문 편수가 감소하였다. 독서치료 전공 외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심리·치료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3~5학년에 집중되어있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졌다. 대상자 수는 11~20명 범위로 선정한 연구가 많으며, 주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와 혼합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발달적·예방적 치료프로그램 연구가 많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정의적 측면으로 설정한 연구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독서치료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핵심어:** 독서치료, 집단독서치료, 학교, 학생, 학교생활

## Abstract

# An Exploratory study on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related to school life

: Focusing on Dissertations from 2011 to 2020

Lee, Hwanjoo · Oh, Youngsub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ibliotherapy related to school life,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on bibliotherapy for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In doing so, it analyzes 93 dissertations published from 2010 to 2020 in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the criteria from four studies on domestic bibliotherapy research trends, and analyzed research trends according to criteria such as basic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treatment progra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ibliotherapy related to school life has been most actively studied in the course of master's degrees, and the number of dissertations has decreased since 2014. Bibliotherapy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ducation and psychotherapy. Second, research participants (i.e., clients) were mainly in the third to fif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ir number decreased as they went to high school. The client number in a therapy group was selected within the range of 11 to 20. Further, bibliotherapy has been mainly conducted for students who did not have clinical problems. Quantitative and mixed research were the most common research methods. Developmental and preventive programs were major, and the purpose of the programs was

predominantly affective. Consequently, implications and future tasks related to bibliotherapy research for the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presented.

---

**Keywords:** bibliotherapy, group therapy, school, student, school life

이 논문은 2021년 1월 15일에 접수하여 2021년 2월 3일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2월 4일에 게재를 확정함.